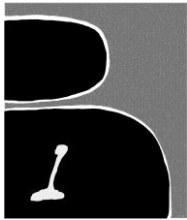


<p>믿음 지혜 실천</p>	<h1>BUDDHANARA</h1> <p>부 다 나 라 (불 국 사)</p>	<p>Faith Wisdom Action</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시 : 초하루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 동지기도 법회 및 전법기도 법회
 성도재일 및 정초기도: 2011년 12월 30일 -2012년 1월 1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5
 정기법회후에 송년회도 가집니다.

부다나라 한국 후원회 - (붓다회)

“미국 부다나라 한국 후원회 (붓다회)”에서 함께 배우고 정진과 함께 봉사를 할 봉사단원들을 기다립니다. 붓다회나 미국 부다나라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9am. (매주 토요일 9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Every Tuesday 6:30 pm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Evening Chenting & Meditation

Intensive Meditation: Fourth Tuesday of the Month (매달 넷째주 화요일 저녁) 7:00 PM - 10:00 PM

이달의 법구경

부처님 가르침
 말로만 외우고
 행으로 옮기지 않는 생각 없는 사람,
 성스러운 생활의 즐거움
 맛볼 수 없네.
 이런 사람
 주인의 소(牛)만 세고 있는 목동 같네.

If a man speaks many holy words
 but he speaks and does not,
 This thoughtless man cannot enjoy the life of
 holiness; he is like a cowherd who counts the
 cows of his master.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11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동안거 결제범어

바로 여러분 눈앞에 밝고 뚜렷하게 산승(山僧)의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들은 누구인가? 합장하고 예배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각자 점검해 보라.

여러분이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다면 내가 그대들에게 묻겠습니다. 그것은 큰가 작은가, 긴가 짧은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그 면목은 어떠한가 그 생김새는 어떠한가.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능히 볼 수 있는 주인공이란 무엇인가?

그러기에 옛사람이 그것은 부처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눈앞에 있지만은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한결같이 참되어 땅념이 끼어들지 않을 때는 그 깨끗하기가 옛 거울과 같고 그 밝은 것이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비추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비추고 옛날과 지금을 비추는데 조금도 숨김이 없고 조금도 걸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경계이며 또 여러분들이 옛 부터 지금까지 쓰고 또 써도 다하지 않는 본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의심이 없습니까? 만일 있다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주장자를 들어) 이것이 보이십니까?

(주장자로 탁상을 치고) 이것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보고 듣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여 의심이 없으면 영원히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통은 없어지고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방하제연심변공(放下諸緣心便空)	모든 반연 놓아버려 마음이 공하니
중자대도자연개(從茲大道自然開)	이로부터 큰 도가 자연히 열리네.
활개양안명여월(豁開兩眼明如月)	두 눈이 일월과 같이 밝아져
도처봉인현고풍(到處逢人現古風)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참 모습 드러내네.

우리가 결제(結制)를 하고 공부(工夫)를 하는 것은 견성(見性)하기 위해서 이다. 견성은 마음의 참 실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工夫라는 것은 심전경작(心田耕作), 마음 밭을 가는 작업입니다. 마음을 푸르고 향기롭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가꾸는 작업이다.

중생의 마음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벌레가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내버려두면 번뇌의 잡초가 무성하고 삼독(三毒)의 벌레가 우글거리게 된다. 우리는 부단히 마음을 세탁하고 갈아야 합니다. 몸을 목욕하고 옷을 세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세탁은 더욱 중요하다. 마음을 갈고 세탁하는 것이 참선이요 정진입니다.

인생구경(人生究竟)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자리에 도달해서 살아야 하나? 그것을 우리는 해탈(解脫)이라 하고 안심입명(安心立命)이라 합니다.

그 경지는 무아(無我)요 우주와 자아(自我)가 혼연일체가 된 세계입니다. 그것은 자유자재(自由自在)요 무애(無碍)요 원융의 세계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할 때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 되며 이럴 때 진정한 자비심이 표출하여 중생구제의 길에서 가지가지 방편(方便)으로 진리(眞理)를 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리아타(自利利他)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구현(具現)입니다.

애써 정진들 하십시다.

“믿음 지혜 실천을 모토로 한국불교 세계화에 전력”

미국 불국사 한국후원회 ‘붓다회’...창립 10주년 특별기념법회 거행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미국의 한 해외사찰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후원단체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동을 주고 있다.

미국 불국사 한국후원회 붓다회(회장 김용오)는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10주년 특별기념법회를 봉행했다.

2001년 12월 해외포교에 뜻있는 불자 3명이 인등기도 모연을 시작으로 창립한 붓다회는 현재 3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아직까지 한국에 법당이나 사무실 하나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회원 관리와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 불국사 한국후원회 붓다회는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 10주년 특별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해외포교의 희망을 보았다’며 10 주년을 축하했다. 혜총스님은 법어를 통해 “선각스님은 엘리트 미국인 불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스님으로 만들었다”며 “마음이 개인 세계인들이 불교에 귀의하는 날이 왔으므로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불자들에게는 “삼라만상 모든 존재가 배움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사색하면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제나 ‘깨어있을 것’을 당부했다.

서울 대각사 주지 장산스님도 격려사에서 “적어도 100 번은 눈물을 흘려야 그럴듯한 법당이 세워 질 것”이라며 “뼈가 부서지고 사지가 잘리더라도 이번 생에 세운 일은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불국사 주지 선각스님은 ‘믿음 지혜 실천’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국불교 세계화에 전력할 것을 다짐했다.

선각스님은 인사말에서 “마땅한 장소 없이도 붓다회는 열정과 희망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며 “행복을 나누고 이웃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용오 회장도 “후원회 활성화를 위해 진취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현지에서 한국불자 이성욱 씨가 법당불사를 소개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10 여년 전 도미한 이 씨는 애틀란타에 법당을 마련하기 위해 선각스님과 힘을 쏟고 있다.

이 씨는 지역회관을 전전하며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불사를 위해 바자회와 차 판매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혀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1500km 에 달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한 번 씩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법문하러 오는 선각스님에 대한 감사인사도 잊지 않았다.

이날 150 여 명의 불자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약 3 시간동안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단체의 성장을 기원했다. 이진호 조계종방생법회 회장은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도 한국불교를 전하기 위해 정진해온 스님을 본받아 앞으로는 힘껏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기념법회는 삼귀의, 한글반야심경 및 영문 반야심경 봉독, 연혁소개, 미국 애틀란타 부다나라 현재모습 소개, 내빈소개, 청법가, 축하공연,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선각스님은 2002 월 5 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건물을 매입하고 불국사를 창건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개신교인들의 땅 밟기 등 어려움 속에서도 부처님 법을 이어오고 있다.

[불교신문 2763 호/ 10 월 29 일자: 홍다영 기자]

50 년만의 최악의 홍수...태국, 미소 잃지 않았다

조계종 재난구호봉사대 4 박 5 일 봉사활동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가 50 년만의 최악의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태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을 단장으로 한 봉사대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 동안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은 태국 중북부지역을 돌며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나눠줬다. 특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민들로부터 감사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봉사대가 준비한 물품은 총 3000 세트. 약 10kg 에 쌀과 라면, 두유 등 음식과 생필품, 구급약 등으로 구성됐다.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측과 사전 논의를 거쳐 이재민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용품 위주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종단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은 WFB 에 성금 1 억원을 전달했다.

봉사대는 태국 한마음선원 신도 및 WFB 봉사자 등 50 여 명과 함께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구호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왓 피쿤팅, 왓 사남늑, 왓 파야얏, 왓 라자 등 총 5 개 사찰에서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줬다. 또 주요방송사인 '채널 3'에도 500 개의 물품을 전달하고 인터뷰를 통해 현지 언론에 활동을 알렸다.

봉사대 단장 혜경스님은 "집을 잃고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태국이 빠른 시일 내 아픔을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티베트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

한국 조계사서 소신공양 추모제 "중국 무력행위 중단" 촉구

▲ 티베트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소신공양 추모제가 1 일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참가자들은 1 시간 동안 소신공양한 티베트 스님들을 위해 기도했다.

불교계 단체들이 티베트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소신공양한 스님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개최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와 티벳하우스코리아가 주최하고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티베트 자유와 평화 기원 소신공양 추모제'가 1 일 오후 3 시 30 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추모제에는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과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회장 지관스님, 티벳하우스코리아 사무총장 남카스님, 이강서 신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등 100 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는 소신공양한 스님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됐다. 1 시간 동안 티베트 의식으로 진행된 기도는 남카스님과 텐진진빠 그리고 우르겐 라마(네팔법당 용수사) 스님이 집전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티베트인 민수(텐진)씨는 '재외 티베트인이 바라보는 티베트상황'을 전했다. 앞서 티베트 스님의 소신공양 동영상을 함께 시청한 그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어렵게 말문을 연 민수씨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많이 울었다. 누군가 나서주길 바랐다. 지금에서야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티베트 글과 문화를 가르치는 일 밖에 없다. 내가 죽어도 내 아이들은 티베트의 독립을 외칠 것이다. 그 길에 많은 한국인들이 함께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한국 불교계의 관심을 호소했다.

추모사를 한 도법스님 역시 "선불리 위로의 말과 추모의 말을 하기 힘들다. 한국 불자들이 티베트인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죄송하고 참담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마음을 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스님은 "티베트인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새 희망을 만드는 불씨를 지펴내자. 불교계가 나서면 정부도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지관스님이 낭독한 호소문을 통해 "중국당국은 티베트인들에 대한 무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커티 사원을 비롯한 주요 기관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즉각 철수하고, 애국교육 등 일체의 충성 강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모제 후 참가자들은 조계사 경내를 돌며 촛불기도를 올리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티베트의 평화를 기원했다.

BUDDHANARA TEMPLE (佛國寺) 성도재일 및 임진년 정초기도

천 개의 해가 떠서 비추듯

한없이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

새해가 열리는 이 아침에 고요히 합장하고,

저희는 새 모습으로 발원합니다.

무한 공덕의 축복으로 태양은 떠오르고,

빛나는 생명 지혜, 끝없는 자비 덕성,

넘쳐 나는 희망과 용기의 햇살이

찬란히 펼쳐옵니다.

참 생명의 불성 공덕 드러내기 원하오며

저의 원력 더 큰 지혜와 자비로 빛내주소서.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 속에

회구하는 착한 일들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 하여 불자님 가정의 가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계속해서 불자님 가정과
좋은 인연 맺게 해주신 부처님 전에 감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국 중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 불국사 (영문이름: Buddhana Temple)에서 불기 2555년 (2011년)
12월 30일 금요일에 기도를 입재해서 불기 2556년 (2012년) 양력 1월 1일 (음력 12월 8일) 일요일 까지
성도재일 및 정초기도를 봉행 합니다. 기도 회향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성도재일날과 더불어 경사스러운 임진년
첫날인 양력 1월 첫째주 일요일에 봉행합니다.
성도재일 및 임진년 새해 기도 동참하신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인연있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무량한 복을 누리시길 축원 올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옵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 주지 연암 선각 합장

성도재일 및 임진년 정초기도 동참금은 \$100.00 입니다.
Pay to the Order of BUDDHANARA TEMPLE

연잎차의 효능

연잎차를 한 모금 마시면 입 안 가득 연잎 특유의 향기가 차의 맛을 즐기게 해주고, 연잎차를 오래도록 마시면 늙지를 앓고 흰머리가 검게
되며, 함유하고 있는 성분 또한 다양하고 약효성이 강하여 어혈(瘀血)을 제거하고 건강식으로 좋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특히 하혈(下血)을 멈추게 하고 피를 맑게 해준다. 연잎차는 녹차의 그것보다 10배 정도의 매우 풍부하고 맑은 향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맛은 비위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달짝지근하며, 색 또한 선명하다.

연꽃은 사찰이나 찻집에서 향차로 쓰이는데 스님들이 연차(蓮茶)를 마시는 것은 연이 마음을 진정(鎮靜)시키는 효과가 있어 도를 닦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연차는 예로부터 심신(心身)을 맑게 하고, 정력(精力)을 돋우는 미용차로 전해오고 있다. 연잎차는 땀이 많이 났을 때
갈증(渴症)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더위에 지친 심신을 도와준다. 또 피를 맑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입 냄새와 니코틴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하엽(荷葉)은 그 성질은 치우침이 없으며, 맛은 쓴 것이며 독이 없다고 하였고, 그 효능으로는 혈리(血痢: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를 치료하고 태아(胎兒)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악혈(惡血: 나쁜 피)을 제거한다고 하였으니 모든 이에 두루 이용할 수 있지만
특히 여성에게 더욱 이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잎차의 효능과 효과

1.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불면증(不眠症)에도 좋다.
2. 피를 맑게 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입 냄새와 니코틴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
3. 갈증(渴症)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어 숙취(宿醉)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여행지에서 물이 바뀌고 고생할 때도 마시면 좋다.
4. 연잎차에는 로에메린, 루시페린, 비타민 C, 비타민 B12 등 기초비타민, 아스파라긴산, 아르기닌, 티로산 등 아미노산, 생리활성재배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성분 등과 같은 여러 영양소(營養素)를 포함하고 있어 당뇨병(糖尿病) 등 성인병(成人病)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카페인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5. 연잎차를 장복(長服)하여 체중(體重)이 감소되면 원래대로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6. 이외에도 항산화(抗酸化) 효과, 혈압강하, AIDS 억제 효과, 치매예방(癡癡豫防) 효과, 자양강장(滋養強壯) 효과, 뛰어난
지혈작용(止血作用)에도 효과가 있다.

■ 연잎차를 달이는 방법

1. 물 1.5ℓ에 찻잎을 약 2스푼 정도를 넣고 물을 끓인 후 색이 우러나면 은근한 불로 좀 더 끓인 후 마신다.

■ 연잎차를 우려서 마시는 법

전통적인 연잎차의 향을 느끼려면 생수나 지하수 등을 끓인 물로 다기를 데운 다음에 1인당 약 2~3g 정도의 차를 다관에 넣고 70~80℃
정도의 물을 부은 후 2~3분 동안 우려낸 후 음용한다. 향을 음미하면서 마시며, 3~4회 우려 마셔도 된다.

* 차게 마시거나 꿀을 넣어도 좋다.

* 식후에 보리차 대응으로 마셔도 좋다.

* 차를 우려는 시간이 길어지면 차의 색이 붉어질 수 있으나 연잎 본래의 속성이므로 상관없다.

◎ 건강에 좋은 연잎차 판매합니다. ◎

애틀랜타 부다나라 성락 권혁만 거사님이 정성스럽게 키우시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드신 연잎차 320개 이상을
애틀랜타 부다나라 창건불사 기금마련에 보태라고 시주해 주셨습니다.

연잎차는 인건비만 계산된 가격인 \$10.00에 판매를 합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불국사)로 연락 바랍니다.

조지아주, 미주리주 이외의 주에서 연잎차 6개이상 구입시에 발송비용은 부다나라가 부담합니다.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 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11월 10일 (음력 10월 15일)부터 2월 6일 (1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은 동안거 결재 기간입니다. 동안거 기간 동안에는 조금이나마 수행자의 마음자세로 항시 삼업(마음, 몸, 뜻)을 챙기고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수행의 근간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참선, 염불, 참회기도등 각자에 맞는 수행 정진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12월 18일에는 동지 법회와 팔죽공양이 있습니다. 이번겨울 모두 건강하게 겨울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 2012년 용띠해를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가내 평안을 기원 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성도재일날과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다나라에서는 불기 2555년 (2011년) 12월 30일 부터 2556년 (2012년) 양력 1월 1일 (음력 12월 8일) 기도를 1월 첫째주 일요일에 봉행합니다. 기도 동참금은 \$100.00 입니다.
성도재일 및 임진년 새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신도님들뿐만 아니라 인연있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무량한 복을 누리시길 축원 올립니다.
- 11월 부터 강의하기로 한 화엄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보현행원품” 강의는 2012년 4월 부터 시작합니다. 12월 과 1월 법회때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민음” “지혜” “실천”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법문이 있습니다.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도 큰 보시중 하나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애틀랜타 부다나라 총무 무영 김동하 거사님이 조지아 공대에서 박사논문이 모두 통과되어 공학박사가 되었습니다. 재미 한국불교 장학회가 주최하는 제 9회 장학생으로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에서 피아노 반주 봉사를 하고있는 김정아 학생의 미국내에서 9명이 선발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10월 23일 오후 2시에 한국불교역사 문화 기념관 공연장에서 부다나라 한국 후원회 10주년 기념행사가 “해외포교 지난 10년 앞으로 가야할 10년”이란 주제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혜총큰스님, 대각사 주지 장산 큰스님, 원명사 회주 원명 법사님, 이재순 장군님 등 지난 10년동안 후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내외귀빈 및 후원회원님 등 250분을 모시고 성황리에 법회를 가졌습니다. 법회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힘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정진하고 포교 하겠습니다.
- 2012년 달력불사를 동참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세인트루이스와 애틀랜타 지역에 살고 계신 신도님들은 정기 법회때 신년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주리주나 애틀랜타 이외의 지역에 사시는 신도님들에게는 달력을 발송해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치 못해서 달력을 받지 못하신 신도님은 부다나라 사찰로 연락 바랍니다.

2011년 11월 신규 인등기도 동참자: 54번 경자생 최용섭, 55번 무진생 최지은, 58번 권오국, 59번 권영희, 96번 계사생 김용문, 97번 병신생 한정숙, 98번 기미생 김정민, 99번 임술생 김정남, 120번 경술생 권태형, 121번 신해생 이주현, 181번 임진생 장승하, 182번 임진생 이재순, 183번 계해생 장정은, 184번 을축생 장성은, 202번 김인순, 211번 을사생 지선 김희경.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자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2012년 달력불사: 무량화 문봉순, 관음성 강상숙, 여래성 김선영, 반야 Greg Kilper, 황혜경, 선법 조승호, 문수행 허서연, 김일권.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셨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